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가장 좋은 나이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나이는 언제일까 ?

어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열 두 명의 방청객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어린 소녀가 대답했다.

"두 달 된 아기 때요. 모두가 가까이에서 보살펴 주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사랑해주고 관심도 보여주니까요."

"열여덟 살입니다.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자동차를 몰고 어디든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달려가도 되니까요."

성인 남자가 대답했다.

"스물 다섯 살이 제일 좋은 나이죠. 혈기 왕성한 나이니까요" 마흔 세 살인 그는 이제 야트막한 고개를 오를 때조차 숨이 가쁘다. 스물 다섯 살 때는 한밤중까지 일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지금은 저녁 아홉 시만 되면 잠이 쏟아진다고 덧붙였다.

어떤 이는 마흔이 인생이 정점이고 활기도 남아 있어 가장 좋은 때라고 했다.

어느 숙녀는 헌 다섯이 되면 자식을 부양하는 가사책임감에서 놓여나서 좋은 나이라고 했다.

예수 다섯 살이 좋다는 남자는 그 나이에 직장에 은퇴한 다음 인생을 편안하게 쉴 수 있다고 말했다.

어제 방청객 가운데 대답을 하지 않은 사람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할머니 한 사람 뿐이었다.

그 할머니는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주의 깊게 듣고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모든 나이가 다 좋은 나이지요. 여러분은 지금 자기 나이가 주는 즐거움을 마음껏 즐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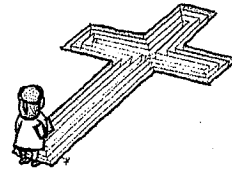
-메다드 라즈 "세상을 바꾸는 작은관심" 중에서-

◀그땐 그랬지▶ 『똥 바가지』

화장실이라기보다 변소라 부르던 그 시절에 똥 푸는 '똥 바가지'가 시골에선 필수였습니다. 똥바가지는 '화이버'로 불린 군인 철모로 만든게 최고였습니다. 철모 양쪽에 구멍을 뚫고 긴 작대기를 끼운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시골에서는 똥바가지로 푸는 똥을 똥통에 담아 밭으로 퍼 날라 거름으로 사용했습니다. 아이들은 똥지게로 퍼 나르다 길가에 등성등성 떨어진 똥에 개의치 않고 잘도 뛰어 놀았습니다.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편리한 시대에 살면서 화이버로 만든 똥바자기를 생각하며 무엇이 행복인지를 저울질해 봅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예수! 돈으로 살 수 없어 사랑으로 얻었다" (요13:35) <b>갈보리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6권 28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5년 7월 3일
☎ 369- 5077,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www.calvary.org.nz		

종교인과 신앙인



종교인은 좋은 게 좋은 거라 말합니다.  
신앙인은 아닌 것에 대해 분명히 아니라고 말 합니다.

종교인은 다른 것에서도 구원이 있다고 말 합니다.  
신앙인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 합니다.

종교인은 부흥을 교인인 많아지는 것을 말 합니다.  
신앙인은 악은 심판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는 것

을 부흥이라 말 합니다.

종교인은 전도를 교회로 사람을 데려 오는 것이라고 말 합니다.  
신앙인은 전도를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는 것을 말 합니다.

종교인은 교회건물이 커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종교인은 유창한 어휘를 구사하며 기도하기를 좋아 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종교인은 넓은 길을 좋아 합니다.  
신앙인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종교인은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 합니다.  
신앙인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을 기적이라고 말 합니다.

종교인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신앙인은 저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종교인은 날이 갈수록 종교 전문가가 되어 갑니다.  
신앙인은 날이 갈수록 열매를 맺어 갑니다.

종교인은 종말을 두려워합니다.  
신앙인은 주여! 어서 오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말씀따라 행하기▶

십자가를 믿는자만 되지 말고  
십자가를  
짚어지는 자가 되고  
전하는 자가 되라

◀인품따라 행하기▶

일하여 거칠어진 손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히려 거칠어진 마음을  
부끄러워 해야 한다.

#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 광 송 Gloria	Calvary	다 갈 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44장	다 갈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36 (사 40)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336장	
기 도 Pray		현석호 안수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다니엘 1:1-16	인 도 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 교 Sermon	선지자 시리즈(5) 골렘 의지 다니엘	김성국 목사
특 송 Hymn		고 동 균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갈 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 ◆7월의 예배위원◆

일자	기 도	헌금위원	주방봉사
3	현석호	김종우	10구역
10	김교섭	김종원	1구역
17	김순자	김진근	
24	김영길	마경춘	2구역
31	김종건	민광호	3구역

### ◆7월의 교회력◆

주 일	예배와 모임
3	구역예배(8) 겨울심방
10	성문밖주일 믿음의어머니기도회(12) 학생부Camp(11-13) Concert(16)
17	교회창립기념 전교인 운동회
31	이삭줍기주일

2005년 교회생활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1. 성경 1독만 하기(하나님 사랑)	*여러교회를 다녀 본 후 결정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2. 전도하지말고 대신 친절하자(이웃 사랑)	
3. 처음 만난 날 처럼(교우사랑)	
주일예배: 아동, 학생: 낮 12시   수요일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5   청년부: 토 저녁 4시

- “추운 날의 특별새벽기도회” 를 마치며  
\*참 주웠습니다. 바깥에 세워 둔 차창에는 얼음까지 앉은 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추웠기에 더 마음 다잡하며 새벽의 문을 나선 새벽기도! 많이 아린 기도에도 풍성한 응답을 위해 지금부터 더 기도합니다.
- 갈보리교회의 “성문 밖 주일” <일시: 다음주일(10일)>  
\*우리교회를 세워 주심에 감사한 7월. 그간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크지만 우리는 작은 보답만 하려합니다. 다음주일은 우리교회로 헌금을 드리지 마십시오. 평소 헌금을 보내고 싶었던 주변의 어려운 교회, 선교회, 교향의 교회등에 보내십시오. 보내실 곳이 떠오르지 않는 교우께서는 헌금함에 드리면 교회에서 정하여 보내겠습니다. “받은 큰 은혜, 작은 나눔”
- 금주는 정기 구역예배 주간입니다. < 8일 저녁 7:30>.
- 금주 수요일예배는 “ 김진홍 목사 집회 ” 참석: 우리교회 수요일예배는 쉽니다.  
<시간> 저녁 7시 <장소> Hawkins Centre (13 Ray Small Dr. Papakura)
- 정기확대대회 <일시: 7월 3일(주일). 오후 2시>
- 결식자급식봉사 <9일(토) 10시-1:30분. 결식자급식봉사부>
- “아버지, 어머니를 위한 사랑의 Concert”  
<16일(토) 저녁 6시. Auckland 음대 Hall> <신청> 교사, 구역장  
\*좋은 재능을 배우도록 뒷받침 해주시는 부모님께 바치는 겨울밤의 Concert!
- 학생부 겨울수련회(예고) <11일(월)-13일(수). Houghtons Bush Camp>  
\*출발, 귀가일의 Pick Up을 위한 차량자원봉사를 기다립니다(문의: 학생부교사)
- 전교인 체육대회(예고) <17일(주일) 오전 11시. Avondale College Stadium>  
\*웁츠리며 보내기 쉬운 추운 계절, 교회 생일을 맞아 어린이처럼 웃고 뛰다보면 잊고 살았던 순진함이 가득해지지 않을까요?(진행: 3남선교회)

### ◀착한 시인들▶ ‘친구’ 에 관한 명언

한 사람의 진실한 친구는  
천 명의 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힘 이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 에센 바흐-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인생을 갖는 것이다 -그라시안-

사랑이나 지성보다도 더 귀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 준 것은  
우정이다 - 헤르만 헤세 -

어릴적 친구를 떠 올리는 것은 추억이상의 보물입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나를 바로 잡아주고 험한 모습으로 지나는 내게 숙연한 넉넉함을 비쳐줍니다. 친구가 있던 곳까지가 내가 있던 곳이고 친구가 있을 곳까지가 내가 가야할 곳입니다.  
요즘 “해피투게더 Friend”란 video를 보는 재미에 푹 빠져있습니다. 초등학교 친구들과의 만남에 철지난 바다만큼 애잔함을 주는 카펜터스의 ‘Yesterday once more’, 거기에 자막에 뜨는 ‘친구’에 관한 명언은 우정의 아름다움을 새삼스럽게 해줍니다.